

국내 희유금속 부존지 예상지 “11곳”

지경부, 정밀탐사 작업 추진 ... 리튬·희토류 해외투자 대상 자원에 포함

정부가 국내 희유금속 부존 예상지 11곳에 대한 정밀탐사에 나선다.

정보기술(IT)과 녹색산업의 필수소재인 희유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3년까지 국내 11개 희유금속 부존 유망지역에서 정밀탐사가 진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0월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수요가 급증하는 리튬과 희토류 등 2~3개 희유금속을 신 전략광물로 지정해 해외투자 대상 자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희유금속이 문혔을 가능성이 큰 국내 11개 주요 광화대를 정밀 탐사하고, 개발 경제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홍천과 충주, 울진 2개 지역, 단양, 무주 등 6곳을 대상으로 1차 탐사를 진행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양양과 하동, 철원, 언양, 소연평도 등 5곳에서 2차 탐사를 벌인다.

비상물량으로 크롬과 몰리브덴 등 8종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총 7만6000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10여종의 핵심 희유금속을 선정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 희유금속의 물질 흐름을 분석해 광종별 핵심 원천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외교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국인 중국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소재기술국인 일본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채널을 활용해 희유금속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중남미를 대상으로 기술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아프리카에 선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15>